



종교 넘어 예술 장르 재탄생 ‘아랍 캘리그라피’

ACC 특별전 ‘아랍문자, 예술이 되다’

아랍 캘리그라피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이색 전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아시아 문화박물관 특별전시 ‘아랍문자, 예술이 되다’를 오는 11월 24일까지 아시아 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 2관에서 개최한다.

전시에서는 지난 2021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그 역사성과 의미를 인정받은 아랍 캘리그라피의 다양한 서체를 14세기 제작된 국립 세계문자박물관 소장 꾸란의 영인본을 통해 직접 살펴본다. 캘리그라피(Calligraphy)는 ‘아름답다(kallos)’와 ‘필적(graphy)’이 만나 아름다운 서체를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재 ‘페르시아’ 등 이슬람권 영향 튀니지 출신 엘시드 작 눈길

고안해 글씨를 쓰는 예술을 뜻한다. 우리말로 ‘멋글씨’라고 하며, 아랍과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카트(khatt)라고 부른다.

전시는 △1부 캘리그라피로 다시 태어난 아랍문자 △2부 서체와 도구로 살펴보는 캘리그라피 △3부 일상 속에 빛나는 예술, 캘리그라피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언어권에 따라 크게 아랍어, 페르시아어, 튀르키예어 등 세

가지 언어권의 ‘아랍문자’ 캘리그라피를 알아본다. 아랍문자 캘리그라피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아랍 문화권과 아랍 문자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는 페르시아어 문화권, 그리고 과거 아랍문자를 사용했던 튀르키예 문화권 등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지역(이슬람권)의 문화와 예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2부에서는 아랍과 이슬람 문화권에서 캘리그라피가 왜 발전하게 됐는지 알아본다. 신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이 금지된 이슬람교의 종교적 특성으로 인해 그림 대신 문자를 새로운 예술로 받아들였다. 종이가 보급되면서 꾸란의 내용을 아름답고 숭고하게 기록하기 위해 캘리그라피가 더욱 발전하게 됐다.

3부에서는 아랍문화를 대표하는 상징 체계로서 이슬람 문화권까지 견고한

종교적 일체성을 조성하고 자부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 아랍문자를 조망한다.

특히 종교를 넘어 아름다운 예술 장르의 하나로 건축, 가구, 그릇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캘리그라피를 다양하게 확인해 본다.

특히 튀니지 출신 프랑스 작가 엘시드(eL Seed)의 ‘당신의 마음을 여세요(Open your mind)’라는 작품도 공개된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아랍문화와 캘리그라피 작품을 바라봐 달라는 의도를 전달한다.

전시 관람 후에는 아랍어를 직접 따라 써보고, 아랍 캘리그라피 도장을 찍어보는 체험공간도 마련했다.

아랍문화권에는 ‘아랍문자 캘리그라피는 바그다드에서 태어나 페르시아에서 성장했고, 이스탄불에서 꽃을 피웠

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아랍문자 캘리그라피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아랍 문화권과 아랍문자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는 페르시아어 문화권, 과거 아랍문자를 사용했던 튀르키예 문화권 등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지역(이슬람권)을 관통하는 예술장르의 하나로 여겨지며 다양한 지역에서 성장했다. ACC는 지난해 진행된 ‘살람, 히잡’ 전시에 이어 서아시아 문화권을 이해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서아시아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라면서 “한국 캘리그라피와 아랍 캘리그라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며 아랍문자 및 서아시아 문화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연계 프로그램 다채

본전시 참여작가 참여 ‘GB토크’ 학술행사 ‘새로운 울림’ 심포지엄 체험형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등

오는 7일 개막을 앞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Pansori, 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와 연계한 다양한 관객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GB토크’ 등 전시기간 내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인다.

●‘GB토크’ 작가와의 대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와 작품에 대한 심층 감상 기회를 제공하는 ‘GB토

크’는 전시기간 내 문화가 있는 수요일을 포함 총 5회 이루어진다. 먼저, 오는 5일 본전시 참여작가인 캔디스 윌리엄스(Kandis Williams), 나 미라(Na Mira), 김영은, 아몰 케이 파틸(Amol K Patil), 노엘 W. 앤더슨(Noel W. Anderson)의 참여로 첫 번째 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14일에는 양림동 전시 공간에서 김자이 작가의 워크숍을 진행한다.

‘GB토크’는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전시 주제와 밀접한 소리, 기술, 문

화 연구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심포지엄 ‘새로운 울림 : 인류세 시대의 예술과 기술(Echoes of Tomorrow: Soundscapes in the Age of Advanced Computing)’이 오는 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개최된다. 연사로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인 마리나 로젠펠드(Marina Rosenfeld), 야콥 쿠즈크 스티센(Jakob Kudsk Steensen), 성 티우(Sung Tieu) 등이 참여해 본전시와 연계한 소리, 기술, 문화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학술의 장(場)을 마련한다.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이 협력기관으로

함께하는 이번 심포지엄 참가 신청은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 마감한다.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으로 주체적인 작품 해석 유도

오는 14일부터 전시 기간 동안 어린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거시기홀 등에서 운영된다.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인 ‘나의 판, 소리’, ‘GB 작은 숲’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전문 도슨트와 함께 작품을 감상한 후 진행되는 체험프로그램이다.

소리를 이해하며 나만의 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나의 판, 소리’와 생태계 전반을 조망하고 자신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공예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GB 작은 숲’을 통해 본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14일부터 전시 기간 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 각각 진행된다.

전시해설과 스크립트 작성의 기본을 이해하고, 어린이가 직접 전시 설명을 해볼 수 있는 어린이 도슨트 프로그램도 전시기간 중 매월 1회, 셋째 주 일요일인 9월 15일, 10월 13일, 11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관련 교육 자료는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아울러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협력 프로그램으로 ‘북구정 - 북구 아트버스’, ‘양림곡목비엔날레 - 어린이도슨트’, ‘광주시 서구문화원 - 나의 洞시대 광주 오페라 전시 공모전’이 전시기간 중 운영될 예정이다. 공공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가을 축제 한마당 9월 ‘광주상설공연’

매주 주말 서구 공연마루 16~17일 한가위 특별공연

광주예술의전당은 9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광주상설공연’을 이어간다. 특히 9월 공연에서는 한가위를 맞아 특별무대를 만날 수 있다. 공연은 추석 명절을 비롯해 매주 주말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린다. 전통 예술공연, 시립예술단 등 다양한 단체가 출격한다.

추천 연휴인 오는 16일과 17일에 한가위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16일 전주한옥마을 상설공연에서 활동하는 전주문화재

단이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 공연을 선보인다.

이어 17일에는 우리시대 국악인 중 가장 대중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소리꾼 남상일 중심으로 창단된 남상일아트컴퍼니의 브랜드 공연 ‘남상일과 놀다歌show’가 기다리고 있다.

매주 일요일 무대에는 예악이 ‘이상한 나라의 꼭두’ 공연을 선보인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전통 꼭두문화를 결합해 각색한 작품으로, 인간의 다양성에 대해 다룬다.

오는 7일 9월 첫 토요일상설공연은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이 ‘가을의 선율을 담아서’ 공연을 준비 중이다. 무대는 ‘가을길, 한가위 밝은달’로 시작해 ‘문어의 꿈’ 등 따뜻한 가을의 감성을 담아낸다.

14일은 시립창극단이 ‘중추가절(仲秋佳節)’을 주제로 전통 창극의 매력을 선보인다.

21일은 시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무대가 펼쳐진다. 무용수들이 훈련하고 지도를 받는 모습을 담은 ‘Balltet Class’를 통해 무용수들이 어떻게 완벽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받는지 궁금증을 풀어낸다.

9월의 마지막 토요일상설공연은 28일 시립국악관현악단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막을 내린다.

도선인 기자

‘인공지능 과학골든벨’ 참가자 모집

20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과 광주 북구는 가족과 함께하는 ‘2024 인공지능 과학골든벨’을 공동으로 주최, 대회 참가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부모가 한팀으로 참여해 다양한 퀴즈를 풀어보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비롯해 미래기술, 과학상식, 초등학교 과학 교과과정 등에 대한 내용이 문제로 나온다.

행사는 오는 28일 국립광주과학관 본관 필로티에서 열린다.

참가자 접수는 내달 20일까지 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광주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학생

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학생과 부모 2인 1팀으로 신청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모든 참가자에게는 국립광주과학관 스포츠 특별전 ‘과학으로 보는 스포츠’ 무료 입장권과 주차권 및 참가기념품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시상은 ‘상위 6개 팀’에게 ‘상장·상패’가 수여된다. 골든벨(1팀)을 울린 우승팀에게는 ‘광주시 북구청장상’, 실버벨(2팀)과 브론즈벨(3팀)은 ‘국립광주과학관장상’이 주어지며, 관람객을 대상으로 깜짝퀴즈 등을 통해 푸짐한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